



[2021 정기총회]

# ‘대선 로드맵 프로젝트’, 코로나19 대유행 그리고 2021년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

지난 2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2021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9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작년 총회 즈음에 느닷없이 찾아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딱 그만큼 2021년 정기총회에도 영향을 주었다. 우리는 창립 후 처음으로 “줌 클라우드미팅 Zoom Cloud Meeting”을 통해 온라인으로 총회를 치렀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2009년에 설립되었으니 13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거의 같은 이유로 생겨난 코로나 19 대유행인 만큼, 마지막일지는 모를 일이다.)

## 2020년 돌아보기: 자임한 과제와 코로나19 PANDEMIC

2021년 정기총회는 여느 총회처럼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계획하는 자리였다. 여느 총회처럼. 그러나 2021년 총회는 뻔할 것같은 평가와 계획으로 채워지지 않았다고 믿는다. 그것은 자임한 과제와 변화하는 담론지형에 대한 긴장 때문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20년에 1년 반 혹은 2년짜리의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20년 2월 22일, 제8차 정기총회에서 정한 “2020년 사업계획”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전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2020년 사업 계획은 일 년 단위 계획을 넘어서서 좀 더 중기적인 계획을 세운 이후 이 계획의 1년 차 계획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본소득의 실현이 좀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인식 혹은 정치적 감성에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정치 제도와 정치 과정을 고려한 시간 계획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기본소득은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추구할 때 다른 여러 정책과 결합되어야 할 하나의 정책이며, 또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과 정신을 담고 있는 아이디어이기도 하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이런 맥락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추구하는 시민운동 조직이자 일종의 싱크탱크이며, 위에서 말한 목표를 제대로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와 전략적 위상 추구positioning가 필요하다.”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답아야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2021년 여름까지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청사진을 기본소득 의제를 중심으로 제출한다. 이 청사진은 잠정적으로 1)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모델의 수립과 이행 전략, 2) 생태적 전환, 디지털 전환, 기본소득 도입 등을 고려한 경제 모델과 제도의 설계, 3)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정치 개혁 방안, 4) 권리의 향상과 평등의 진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의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권력의 변화를 가져오는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 중 몇몇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를 “대선 로드맵 프로젝트”라고 불렀다. 그래서 2021년 총회에서 “지난 해를 돌아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대선 로드맵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다. 2020년은 대선 로드맵 프로젝트의 1차년으로 계획되었다. 로드맵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인 “월례 쟁점토론회”는 그래서 2020년의 중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1차례 월례 쟁점토론회를 개최했다. 월례 쟁점토론회는 기본소득의 정의, 정당성과 쟁점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잠정적’ 입장을 마련

---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구체적인 쟁점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 2월 “기본소득 정의”
- 3월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 4월 “기본소득과 데이터 공동소유권”
- 5월 “기본소득과 젠더”
- 6월 “기본소득과 부동산 불평등”
- 7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 8월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 9월 “재정원리, 시민소득세”
- 10월 “누진 모델 등 모델, 소득세 제외 공유부 자원”
- 11월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
- 12월 “범주형 기본소득”

지난 2020년의 쟁점토론회를 통해, 애초 목표대로 각 주제에 대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입장’을 잠정적으로나마 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조금씩 다른 생각들이 충분히 교류되어 집단적 합의에 이르거나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밝히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주제도 있었고, ‘입장’을 위한 초안이 마련되지 못한 까다로운 주제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0년 대선 로드맵 프로젝트 1차 년은 해당 주제의 논의 현황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었고, 집단으로서 입장을 정하는 것은 2021년의 과제로 넘겨졌다.

그런데, 2021년에 “지난해를 돌아보는” 것은 갑자기 닥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생긴 변화에 대한 것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은 계획의 차질을 가져왔다. 2020년 봄이 오기도 전에 들이닥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계획한 사업들의 행위자인 우리를 압도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적 없는 바이러스 대유행은 심리적 위축과 당혹감을 불러일으켰다. 1918년 스페인 독감과 유사할 거라는 예측만 있었고,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확률을 낮추는 것뿐이었다. 멍한 상태, 우왕좌왕의 시간을 보내면서, 월례 쟁점토론회, 연속기획 토론회 등은 물리적 접촉 없이도 함께하는 방식을 병행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다. 즉, 유튜브 중계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통해 진행했다. 하지만 많은 사업과 행사는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학술연구와 사회운동의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인 2020년 제20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 및 회원총회가 호주 브리스번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취소되었고, 2020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의 밤 등의 행사도 개최하지 못했다.

만나지 않고도 교류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코로나19 시대의 과제가 되었고, 그 와

중에 꾸준히 발행된 계간 《기본소득》이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2020년 한 해 동안, 계간 《기본소득》 제3호~제6호가 발간되었다. 편집위원회 성원들의 헌신 덕분에, 호가 거듭될수록 다양한 이슈와 다양한 필자들의 글이 실렸고 그래서 계간 《기본소득》은 날로 두툼해졌다. 그러면서 계간 《기본소득》의 독자는 누구인가, 예상 독자층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가가 새로운 고민으로 등장했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회원들에게 내용 있는 읽을거리를 제공하자는 애초의 소박한 목표에 머무를 수 없었고, 한국사회의 기본소득 ‘매체’로서 전파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부각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재난”을 맞이하며 기본소득이 경제적 대책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우리부터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한시적 기본소득 정책을 요구했고, 국회의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부터 조건 없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또는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주민을 대상으로 일회성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펴고, 중앙정부의 전국적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보편적으로 지급되었다.

경기도와 전국의 보편적 지원 경험이 사람들 사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지지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정치권 논쟁의 중심 이슈가 되었고,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호감만큼이나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의 발언 또한 급격히 늘어났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방어’와 ‘옹호’는 우리의 갑작스런 주요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우리는 논평/성명서를 발표하고, 2020년 상반기에 격전의 장이 된 온라인매체 《프레시안》에 릴레이기고를 실었다. 2020년에 발표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논평과 성명서는 아래와 같다.

3월 10일, 성명서 “온국민 코로나(재난) 기본소득 실시를 촉구한다” 발표.

3월 24일, 성명서 “다시 한 번 ‘온국민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촉구한다” 발표.

3월 24일, 논평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환영한다” 발표.

3월 30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발표.

5월 13일, 논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하여” 발표.

11월 2일, 논평 “국회에서의 기본소득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발표.

12월 1일, 논평 “3차 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발표.

12월 14일, 논평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를 기대하며” 발표.

《프레시안》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기고”는 2020년 7월에 시작했다. 한 해 동안 총 9편의 기고를 하면서 기본소득 논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했다. 릴레이기고는 아래와 같았다.

7월 9일, 백승호, “기본소득은 뺄셈도 나눗셈도 아닌, 덧셈이다: 욕구와 권리 실현을 위해”

7월 14일, 신지혜, “부동산 투기도 막고, 기본소득도 시행할 수 있는 방법: 기본소득 없이 부동산

투기 막을 수 없습니다”

7월 28일, 오준호, “홍남기 부총리의 ‘기본소득 삼불가론’에 반박한다”

8월 11일, 김수연, “토지와 대기, 그리고 플랫폼까지... ‘공유부’ 기본소득을 말한다”

8월 25일, 신지혜, “‘통합당표 기본소득’, 뜯어보니 기본소득이 아니네”

8월 28일, 안효상,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논의에 대하여”

9월 10일, 윤형중, “기본소득의 역설? 기본소득 ‘논의’의 역설!”

11월 2일, 서정희, “국회에서의 기본소득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 올해를 계획하기

2020년의 기운은 2021년에 거의 그대로 이어졌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시대도 여전했고, “대선 로드맵 프로젝트”라는 자임한 과제도 유효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 2월 20일 제9차 정기총회에서,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정책 제안이 의미 있게 논의되도록 대선 로드맵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것, 코로나19 팬데믹과 그 이후에 우리의 세상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2020년이 남긴 과제들을 실행하는 것을 2021년의 핵심 목표로 삼았다. 정기총회에서 결정한 2021년 사업 목표는 아래와 같다.

1. 늦어도 2021년 8월까지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청사진을 기본소득 의제를 중심으로 제출한다.
2. 이런 청사진이 광범위하면서도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미디어 활동, 연대 활동을 수행한다.
3. 기본소득을 둘러싼 전면적인 논의 과정에서 회원과 지역네트워크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네트워크 상황에 맞는 활동 방식을 모색한다.

2021년 주요 사업들은 이 목표를 중심으로 이뤄지거나 이 목표와 호응하며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대안(‘대선 로드맵’)을 제출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도 월례 쟁점토론회가 이어진다. 2021년 상반기의 쟁점토론회는 기본소득과 결합되어야 할 주요 영역들을 차례로 살펴보는 토론주제들로 진행되고 있고, 더불어서 정책안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과정을 진행할 것이다. 목표대로 8월까지 “대선 로드맵”이 완성되면, 이후에는 이를 공론화하고 대선 후보들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정책 대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즉 정책 제안, 토론회, 캠페인 등을 하게 될 것이다. 2021년부터 운영되는 지역네트워크 협의체를 통해, 이 활동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들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계간 <기본소득>과 2021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11월 예상)을 통해, 폭넓은 분야의 광범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정책 대안을 포함한 현재의 이슈들을 논하고자 한다. 칼럼 집필 등의 언론 활동, <기본소득 뉴스레터> 개편과 교육콘텐츠 개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개발 등을 통해 그 소리를 효과적으로 증폭하는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

2021년에도 국내외 여러 행사와 정치일정을 함께 치르는 ‘국내외 교류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기본소득스코틀랜드네트워크(Basic Income Network Scotland)에서 주관하는 제20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IEN 대회, 제20차 BIEN 총회, 2021년 세계기본소득주간 등의 국제 행사, 우리가 공동주관 또는 공동주최로 함께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2021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기간의 기본소득 정책의제화 등이 대표적이다. 2021년 3월 현재,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등과 함께 2차례 포럼을 진행했으며, 2021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 질의를 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공약한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미래당 오태양 서울시장 후보와 협약식을 치렀다.

자임한 과제와 주어진 과제 속에서 2021년의 삼분의 일이 지나가고 있다. 모쪼록 우리 모두의 건투를 빌고 싶다.

## 나머지 이야기

정기총회가 평가와 계획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흐뭇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마련이고, 2021년에 그 프로그램은 ‘2020년 감사패 시상’과 대전, 충북의 소식, 특히 판동초등학교 ‘어린이기본소득’ 소식으로 채워졌다.

‘2020년 감사패 시상’은 일종의 밀린 숙제였다. 2017년부터 한 해 동안 기본소득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연말에 열리는 ‘회원의 밤’)를 했는데,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마음을 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비록, 온라인으로이지만, 감사패 시상식을 했고, 2020년의 수상자는 역작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바로 지금 기본소득』을 펴낸 금민 이사, 국회에서 기본소득 입법 활동과 담론 형성으로 기여한 용혜인 의원, 충북에서 기본소득운동을 활발히 펼친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등 셋이었다. 비대면이라 꽃다발은 없었지만, 감사와 축하의 마음은 랜선을 타고 전해졌다.

대전과 충북의 소식은 영상으로 즐겼다. 대전네트워크에서는 ‘2020년 기본소득 공모전’을 개최했는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영상 <기본소득 넘버원>을 함께 감상했고, 충북네트워크에서 2020년 활약상을 유쾌한 영상으로 공유했다.

판동초등학교 ‘어린이기본소득’ 소식은 학교 매점에서 경험하는 기본소득 이야기였는데, ‘어린이 기본소득’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한 강환욱 선생님(2020년 가을에 회원이 되었다)이 직접 소개해주었다.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기본소득은 생생했고 또 감동적이었다.

내년에도 감동을 주는 소식들이 있기를 기대해도 될까?